국제 금융 속보

국제금융센터
Flash News
2024. 12. 14

황유선 | 책임연구원 (제 7014)

■ **주요 뉴스: ECB 정책위원, 향후 점진적 금리인하 지속 시사**

○ 분데스방크, '24년 및 '25년 독일 경제성장률 전망치 큰 폭 하향조정

○ 영국 10월 GDP, 2개월 연속 위축. 4분기 경기후퇴 위험 증가

○ 인도네시아·브라질 중앙은행, 자국통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해 시장개입

■ **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FOMC 관망세 속 일부 기술주 강세 등으로 혼조**

주가 약보합[-0.00%], 달러화 약보합[-0.01%], 금리 상승[+7bp]

○ 주가: 미국 S&P500은 다음주 FOMC 관망세 속 약보합, 나스닥은 상승

유로 Stoxx600지수는 주요국 경제지표 부진으로 0.5% 하락

○ 환율: 달러화지수는 다음주 Fed의 매파적 인하 기대로 약보합

유로화 가치는 +0.3%, 엔화 가치는 -0.7%로 5일 연속 약세

○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내년 금리인하 속도 둔화 가능성으로 상승

독일 10년물 국채금리는 경제성장 전망 후퇴로 5bp 상승

※ 뉴욕 1M NDF 종가 1434.1원(스왑포인트 감안 시 1435.8원, 0.04% 상승). 한국 CDS 상승

		12/13일	12/12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6,051.1	6,051.3	-0.00%
	유럽	516.45	519.20	-0.53%
	중국	3,391.9	3,461.5	-2.01%
	일본	39,470	39,849	-0.95%
	한국	2,494.5	2,482.1	+0.50%
환율	달러지수	106.95	106.96	-0.01%
	유로화	1.0501	1.0468	+0.32%
	엔화	153.65	152.63	-0.66%
	위안화	7.2736	7.2691	-0.06%
	원화	1,435.2	1,430.5	-0.33%

		12/13일	12/12일	전일대비
국채금리 10y	미국	4.40%	4.33%	+7bp
	독일	2.26%	2.21%	+5bp
	영국	4.41%	4.36%	+5bp
CDS 5y	한국	37bp	36bp	+1bp
	중국	63bp	61bp	+2bp
위험지표	EMBI+	-	354	-
	VIX	13.81	13.92	-0.79%
원자재	WTI유	71.29	70.02	+1.81%
	구리	414.9	419.5	-1.10%
	금	2,648.2	2,680.7	-1.21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한국 Kospi, 원화는 9.30일 대비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종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**ECB 정책위원, 향후 점진적 금리인하 지속 시사**

○ 빌로이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내년에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으며, 목요일 통화정책회의 이후 시장의 금리전망 변화에 대해 편안하다는 입장

○ 카작스 라트비아 중앙은행 총재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적절하지만 경제여건에 따라 금리인하 폭이 늘어날 수 있다고 언급. 중립금리는 3%보다 2%에 가까우며 이에 따라 앞으로 상당폭의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평가

○ 에스크리바 스페인 중앙은행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 회의에서 추가 금리인하가 합리적이며, 경제여건이 전망과 유사하게 형성될 경우 지속적인 금리인하 시사

○ 뮐러 에스토니아 중앙은행 총재는 금리는 여전히 제약적이고, 일시적 인플레이션 변동성은 불가피하며, 제로금리는 비상시에만 가능하다고 발언. 트럼프의 정책이 유럽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가늠할 수 없다고 평가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**분데스방크, `24년 및 `25년 독일 경제성장률 전망치 큰 폭 하향조정**

○ `24년 GDP가 0.2%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며 6월의 0.3% 성장에서 대폭 하향 조정. `25년에도 +0.2%(6월 +1.1% 전망)로 성장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

○ 독일 경제는 지속적인 경제 역풍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제부진 장기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가시화. 독일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 무역전쟁 발발에 따른 글로벌 수요 위축에도 취약

■ **영국 10월 GDP, 2개월 연속 위축**

○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GDP는 0.1% 감소. 서비스 부문 약세, 제조업과 건설업 생산 감소에 기인. 이에 따라 4분기 경기후퇴 위험이 증가

○ 고용시장 냉각, 모기지·에너지 비용 상승, 기업의 소비자가격 인상 및 일자리 축소를 통한 비용상승 전가 위협, 글로벌 무역전쟁 가능성 등 여러 역풍에 직면

■ **인도네시아·브라질 중앙은행, 자국통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해 시장개입**

○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루피아화의 대미달러 환율이 주요 레벨인 16,000을 상회함에 따라 현물시장, 역내 NDF 시장, 국채시장에서 개입을 단행

○ 브라질 중앙은행은 전일 금리인상에도 헤알화 약세가 재개됨에 따라 $8.45억 규모의 시장개입 단행. 시장에서는 약세폭을 줄일 수는 있으나 재정적자 확대라는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방향을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

■ **IIF, 11월 신흥국의 외국인 증권자금 순유입폭은 $192억**

○ 주식자금은 $111억 순유출, 채권자금은 $304억 순유입. 신흥국 채권에 대한 수요는 수익률 추구, 주식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움직임 등으로 견조한 모습. 중국은 무역분쟁 우려로 증권자금이 순유출

■ **일본 엔화, BOJ 금리인상 기대 하락으로 6월 이후 최장기간 약세**

○ 대기업들의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이 유지되는 등 긍정적인 BOJ 분기 탄칸 보고서에도 최근 우세해진 12월 금리동결 기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엔화는 미 달러화 대비 5일 연속 약세

■ **중국 국채금리, 사상 최저수준으로 하락**

○ 중국 정부가 경제공작회의에서 완화적인 통화정책 스탠스로 수정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사상 최저치인 1.78%로 하락. 앞으로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국채금리가 제로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제기

■ **UAE, 내년초 원유수출 축소 가능성**

○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(Adnoc)의 계약사에 따르면 아시아 고객사에 대한 원유 화물 배정이 다양한 원유등급에 걸쳐 최대 일일 23만배럴까지 감소할 소지

■ **러시아,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에 대해 대규모 공습 단행**

○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서부 국경지역의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해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가했다고 발표. 러시아는 이번 공격이 지난 11일 우크라이나의 자국 남부 타간로그와 공군기지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고 언급

○ 한편 국제유가는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, 미국의 러시아·이란 등 주요 산유국에 대한 제재 강화 가능성 등으로 +1.8% 상승. 주간 기준으로는 +6.1%

주요 경제지표

■ **다음주 주요 경제 이벤트(12/16~12/20)**

○ 미국 12월 FOMC, 영국 BOE 통화정책회의

○ 중국 소매판매, 산업생산, 고정자산투자

○ 미국 PCE, 유럽 및 캐나다 CPI 상승률, 영국 고용지표 및 소매판매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S&P500 및 KOSPI

미국 및 한국 국채 10년물

자료 : Bloomberg

달러인덱스 및 원/달러 환율

브렌트유 및 유럽 천연가스

자료 : Bloomberg

VIX 및 EMBI+

달러-원 스왑베이시스 및 한국 CDS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4, E-mail yshwang@kcif.or.kr